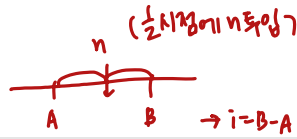


저축: 원금 이상을 돌려받음 → 이자율
투자: 손실을 볼 수도 있음! → 수익률



들어오거나 나가기 없이
이자
원금

수익률 $i = \frac{B-A}{A+B+A} \times 100\%$: 추가로 원금 투입 / 원금기 x

→ 투자 $B-A = i$

$\therefore \frac{2(B-A)}{A+B+(B-A)}$

→ 추가로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/ 빠지는 경우

기말자산 $B = A + \frac{n-w}{2} + i$
등가금 나감

$i = \frac{I}{A + \frac{n}{2} - \frac{1}{2}w} = \frac{I}{A + \frac{1}{2}(n-w)} = \frac{I}{A + \frac{1}{2}(B-A-i)}$

하비는 좋은 공식!
일반화된 수익률

대한금융신문

주식당보대출(1억)

이자율에
자본
원금도 변동함
①
단기
복리

원금도 변동함
<다인> 사이트
현재가치계산기

내년엔 종신보험 더 저렴해진다... 경험생명표 개정 시작

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‘금융’ 기사. Q&A로 쉽게 풀어드립니다.💡

Q: 종신보험이 무엇인가요?

A: 사람은 평생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죠. 그게 언제더라도 계약자(피보험자)의 사망 시 유족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합니다. **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보험금 지급**이다 보니 보험료도 비싼 편에 속하죠.

Q: 보험료가 저렴해지면 추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줄어드나요?

A: 우선 보험료가 저렴해질 거라는 예측에 대해 설명할게요. 보험료는 경험생명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. 경험생명표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과 기대여명을 보여주죠. 기대여명이란 쉽게 말해 **40세 남자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지를 나타내는 거**예요.

최고통계법령
9년17 2019년

올 연말 나오게 될 경험생명표는 벌써 10번째 개정이에요.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기대여명도 계속 증가해왔습니다.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이유는 40세 남자들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시기가 평균적으로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**지급시기가 늦춰질수록** 보험사는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가치가 더 하락하겠죠. 그만큼을 계약자가 내야할 보험료에서 깎아주는 개념입니다.

주식시장이 낮쳐지니까!

그럼 사망보험금이 같이 줄어들까요? '약속한 보험금'을 지급하는 거니 보험금의 액수는 동일합니다. 똑같은 보험금을 얼마나 늦게 지급하게 됐느냐로 보험사가 거두는 보험료만 바뀌는 거죠. 즉 보험금의 액수는 같지만, 가치가 축소되는 만큼 보험료가 낮아진다고 봐야겠죠.

Q: 올해 가입한 사람은 내년이 되면 보험료가 변동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나요?

A: 경험생명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. 올해 만들어진 종신보험은 9차 경험생명표가 적용된 보험료로 납입기간 내내 유지됩니다. 10차 경험생명표는 내년 4월경 출시되는 상품부터 반영되겠죠.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다면 내년에 가입하는 게 맞아요.

참고로 보험료에는 금리상황도 함께 반영됩니다. 예정이율이라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, 금리가 높을수록 보험료는 싸져요. 금리가 더 상승한다거나 혹은 이 상태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분명 보험료는 내년이 더 유리하겠죠.

기사 전문 : [내년엔 종신보험 더 저렴해진다...경험생명표 개정 시작 < 보험 < 금융 < 기사본문 - 대한금융신문 \(kbanker.co.kr\)](#)

글 : 박진혁 기자

Q: 안영선 사원

A: 박영준 금융부장

[#보험](#) [#종신보험](#) [#보험료](#) [#보험금](#) [#금융](#) [#경험생명표](#) [#예정이율](#) [#사망보험금](#) [#계약자](#) [#피보험자](#)
[#신문](#) [#기사](#) [#뉴스](#) [#금리상황](#) [#금리](#) [#이율](#) [#QNA](#) [#정보](#) [#금융정보](#) [#대한금융신문](#)